

영상매체 시대의 책

3 영화와 책

鄭鎭國

미술평론가

영화보다 더, 그 기술이 완성되자마자 다른 매체들에 전권적인 영향력을 미친 시각매체도 달리 없을 것이다.

映像史의 진화과정에서 영화는 서로 다른 매체의 상호참조를 가속화,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 몫을 했다. 생산방식의 대량화, 기계화라는 면에 주목한다면 사진의 발명 또한 중요한 계기였지만, 영화에 있어서는 움직임의 도입, 즉 조형예술에 시간성을 끌어들이는 점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시네티즘 시대의 책

영화의 발명기, 즉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는 한세기 이상을 진행해온 낭만주의적 예술관, 부르주아적 예술관의 모순이 심화된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 이론과 실제에 있어 풍요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바그너의 총체예술론이나, 타라부킨의 좌파 예술론, 그리고 뒤이어 금세기 아방가르드의 문을 연 미래파 운동의 이념들이 그것들이다.

영상문제만을 고려한다면 에티엔느 쥘 마레이, 에드워드 머이브릿지의 고속도 촬영방식으로 인화해낸 '크로노토프그라피(Chronophotography)' 나, 움직이는 동물이나 인물을 찍은 연속 사진들, 그리고 그림엽서의 민중적 양식을 통해 삼시간에 유포되어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포토몽타주' 등이 한창 새로운 조형언어를 연마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파 시인 마리네티는 활자가 사용되는 관례를 파괴함으로써 문자언어를 보다 적극적인 표현매체로 부상시키고,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작업에 임했다. 그가 펴낸 「라세르바 Lacerba」를 비롯한 책들은 운동의 요소를 활자+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영화에서나 가능할 복합매체의 언어적 통일을 시도해본 것들로 남아 있다.

형상의 물리적 운동만이 관심이 아니라, 격변하는 세상살이, 급속도로 팽창하던 도시화 현상, 세계대전에서 따른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벽찬 현안들을 표현할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양식에 대한 요구가 비등했으므로 '책' 또한 이같은 요청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 없었다.

조형론 일반에서 부를 때 '시네티즘 Cinetisme' 으로 대변되는 사고방식이나 스타일이

활자와 영상언어의 결합으로

탄생한 책은 이제 더 이상 지혜를 담은

질서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분방한 사고와

감각의 신선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즐거움 혼돈의 잔치마당이다.

이런 책들은 읽을거리 못지않은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있는

독서체험의 확장을 가져온다.

모든 매체에 걸쳐 이때처럼 활짝 피어났던 적도 드물 것이다.

움직임만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도 그렇지만, 그것이 조성하는 살아있음의 분위기, 애니메이션의 역동성은 역사상 금세기 초반이라는 특정 시기에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성의 징표이기도 했다.

수첩이나 그림책 한 모서리에 페이지마다 조금씩 변화된 像을 새겨놓아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책장을 훑으면서 그 움직임의 환상을 보고 즐겼던 체험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

만화책처럼 그림 이야기가 아니라 더 실감 있는 영화 이야기(혹은 사진 이야기)를 책의 형태 속에서 즐겨보고자 하는 것은 대중의 자발적인 욕구이기도 했겠지만, 대중용 잡지편집자들의 그 시장성에 대한 명민한 판단이 그러한 요구에 실체를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 초창기 영화-무성영화-, 어차피 이야기의 단락마다 자막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재편집, 인화하여 묶는다면 그대로가 한편의 '영화이야기 책'이 될 수 있어, 책과 영화의 서술구조상의 근친성이 어느 때보다 밀접했었다.

이러한 프랑스에서는 1910년대의 주간지나 영화잡지의 몇 페이지는 거의 예외없이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토막사진(Photogramme)으로 옮겨 자막을 활자화하여 곁들여 놓는 방식의 '이야기거리 영화 le film raconté'가 수록되곤 하였다. 그러나 영화의 전체 줄거리가 효과적으로 축소 편집되기보다는 눈요기거리나 흥미를 부추기는 쪽으로 왜곡되기가 일수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에 이와 비슷한 것을 꼽는다면 극장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전단이 될 것이다. 즉 영화 이야기의 플롯이 축약된다고 보다는 주변배우의 클로즈업된 장면이나 천박한 취미를 자극하는 장면 등이 우선적으로 채택됨으로써 영화적 서술구조의 뼈대가 아니라, 치장된 일면들이 '이야기거리 영화'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책으로 보는 영화

이러한 주간잡지의 일부를 차지했던 이야기거리 영화 혹은 영화이야기가 본격적이며 독립된 장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서 크게 성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대중문화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토로망 photoroman'(만화책의 형식에 사진을 대입시킨 이야기 사진 책)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시네로망 Cineroman'이 그것이다.

시네로망의 선두주자는 프랑스 신소설작가인 알랭 로브그리예와, 같은 여류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 등이다. 이들은 영화를 단순히 책의 형태로 재편집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설과 영화를 똑같은 주제를 놓고서 동시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두가지 표현매체로 옮겨놓는 데에 관심을 쏟았으며, 따라서 시네로망, 즉 '책이라는 영화'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고급 독자를 겨냥하여, 지적이며 고상한 주제, 실험정신, 한정판으로 펴내기 등의 제작방식으로 인해 주변적이고 제한된 출판활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한편 영화를 소설로 구성(novelisation)하는 과정에서 활자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시각화시키고 문장을 화면에 대비시켜 묶는 여러가지 방법들은 도

상과 활자의 결합된 디자인에 다양한 가능성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마리네티 이후로도 기욤 아폴리네르 같은 초현실파 시인에게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었다.

도상+활자, 또는 이미지+텍스트, 더 면밀한 용어로 말한다면 토막사진(photogramme +글씨체 calligramme)의 상보적 활용은 영화언어를 책 속에 도입함으로써 책이 제8의 예술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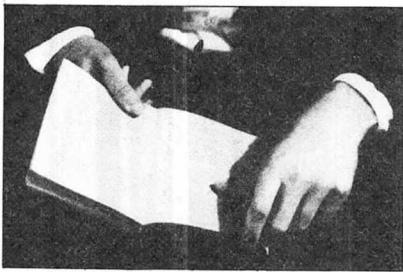
68세대식 출판

비교적 공식적이고 관례적인 책의 형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중 속에 파고드는 데 성공했던,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했던 영상시대의 책들이 한단계 더 높게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금세기 초에 시작된 복합매체의 화해와 조정의 場으로서의 책이 그 정치적 역량과 이념상의 일관성까지 갖추게 된 것은 '68 학생운동-또는 혁명-을 맞이하면서부터이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이야기 책 (1928)



- Le titre de ce livre ?
- Vous le connaissez mieux que moi !

마리 프랑스와 폴리샤르의 포토 로망 「弱視」(1986)의 일부

당시의 학생운동권에서 펴낸 책들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때로는 팜플렛의 형태로, 때로는 패스트 아트(Fast Art; 햄버거 등의 간편한 음식을 이르는 Fast Food에 비유하여, 신속히 제작되고 현장성·속보성을 살려 만들어지는 예술작품을 이른다)로서, 때로는 카피 아트(Copy Art: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기술의 기술적 과정의 매력에 착안하고, 또 그 저렴한 경제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려는 예술)로서 독창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최근 10대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제작해내는 「광진(Fan zine)」은 청년문화의 창구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68세대의 유산이다.

국내에서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리우스의 그림책도 그 한 사례인데, 이 '짧은 책'들의 공통점은 심각한 채하지 않거나, 터부를 공격하기, 기성모럴에 아랑곳하지 않거나, 쓴웃음의 미학, 인종차별의 반대, 반전·반핵으로 대변되는 녹색주의, 평화주의, 性的 해방,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는 호전성 등일 것이다.

아메리카 '68 히피의 기수였던 제리 루빈의 「그렇게 해라 Do It」라든가—그렇게 하지말

라는 일체의 제도 신봉자들의 어법에 대한 전신만신의 저항의 표현으로서—프랑스의 콩방디(지금은 독일에서 의회주의자로 변신해 있다)의 「우리는 그토록 혁명을 사랑했네 Nous avons tant aimé la Revolution!」 등의 책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광진」의 전통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눈치 보지 않고 인간사 전반에 걸쳐 대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이의제기에 걸맞는 형식으로서 책의 구투, 책의 낡은 형식, 책을 읽는 습관까지도 바꿔놓으려는 그 개방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각도, 일정한 순서로서 읽혀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활자와 문장과 행간과 단락 등도 제멋대로이며, 그림이나 사진은 사방팔방에서 불쑥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반복되기도 하며, 거꾸로 뒤집히기도, 책을 읽어나가는 페이지의 순서가 갑자기 뒤섞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책은 지혜를 담는 질서의 공간이 아니라, 책은 자유분방한 우리의 사고, 감각 모두가 당혹하고 신선한 체험의 와중에서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성찰의 기회, 무질서와 혼돈의 잔치마당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역사적 사건의 진실성 여부가 심판대에 올려지는 방식에 있어, 그 正史의 맥락을 뒤흔들어 놓는 영화적 몽타주 수법은 이들이 즐겨 구사하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정치영화 총서 Cinema politique」는 카피 아트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권의 책 속에 농축시켜 놓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사건기, 인물 인터뷰, 연대기, 시나리오... 이런 다른 글쓰기 방식이나 다채로운 영상자료(포스터, 전단, 사진, 포토그램)들이 함께 책 전체의 일관된 서술을 구사하도록 원자료 그대로가 복사기를 통해 편집된다.

시네로망의 변주

영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영화이론서나 영상비평서들의 경우에도 영화적 구성이나 시네로망 기법의 차용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편집과정에서의 포토그램들의 배치는 그것 자체가 영화작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손쉽고 명확한 요소이다.

영화작가가 구사하는 영상어법은 책의 형

태로 펼쳐진 상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으며, 더구나 극장에서 상연되듯이 일정한 화면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크기의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원작 영화와는 또다른 매력을 발휘하게도 되는 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을 분석한 책들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작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영상소재들을 카메라에 담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윌리엄 와일러나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촬영기법 역시 책 속의 도상으로 환원시켜 놓고 보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다.

몽타주 기법을 가장 훌륭하게 이용한 작가의 한사람인 프리츠 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는 후세의 편집자들이 현대적인 채술을 이용하여 원작보다 더 입체적이고 견고한 대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시네티즘'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독서 또한 속도를 참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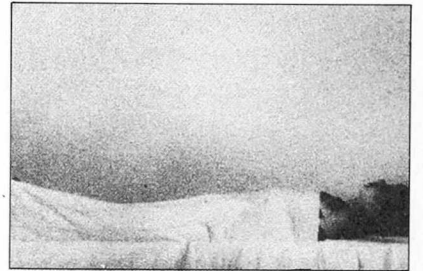
'시네로망'이나 '포토로망' 그리고 기타 화보잡지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책을 보다 흥미있고 빠르게 읽어들여야 할 어떤 것으로서 대하게 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읽을거리가 못지않는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있는 독서 체험의 확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많은 경우, 그 메시지의 입체적인 증폭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상언어가 책속에서 쓰여지는 방식은 점점 더 인간사 제 문제의 중요성을 경감시키는 데에, 혹은 문제를 중성적인 눈요기거리로 몰아붙이는 방향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하고 문제의 복합성과 무게에 걸맞는 대안문화로서의 영상—책이 한낱 즐길거리로서 환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대중적 취미가 언제나 비속하고 천박하다고 미리 규정하는 출판사업자의 일정한 이념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의 무서움은 대안문화의 모범까지도 평균적 취미이거나 중성적 취미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소화하고 배설해내는 그 놀라운 정화장치 및 기능에 있을 것이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페르소나」(1966)의 포토그램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매체를 수용해낼 수 있는 종합매체이자 총체예술로서의 책의 잠재력 개발은 그 예술성에 주목하여 작업하는 지식인 전위집단과 그 대중적 상업성에 주목하는 발행인 전위집단의 갈등 속에서 꾸준히 파헤쳐지고 있기는 하다.